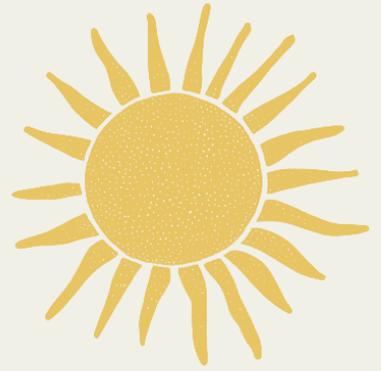


THE NEW CITY DRESS CODE

도시 생활을 위한
새로운 드레스코드

변화무쌍한 도시 생활을 위한 안내서



UNI
QLO

AIRism
comfort conditioning technology

ABOUT THE SURVEY

예측할 수 없는 도시의 환경이
우리의 기분, 생활, 그리고 옷 입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유니클로는 연구조사 기관인 다이나타(Dynata)와 협력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서울, 런던, 파리, 뉴욕, 상하이, 방콕, 도쿄 등
7개 도시에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출퇴근하는
18세 이상 약 7,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데이터는 2024년 12월 16일부터
2025년 1월 3일까지 수집되었으며,
각 도시의 표본 크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런던 응답자 1,002명
- 파리 응답자 1,000명
- 뉴욕 응답자 1,001명
- 상하이 응답자 1,037명
- 서울 응답자 1,000명
- 방콕 응답자 1,000명
- 도쿄 응답자 1,012명



CONTENTS

개요	04
----	----

제1장

도심 속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옷차림

도시의 스트레스	05
날씨 좋을 때만 친구	06
기분 전환 & 상황 통제	06
옷차림으로 기분과 웰빙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팁	07

제2장

변화무쌍한 도시 환경에 어울리는 옷장

출퇴근 속 마주하는 문제	08
뮤즈로서의 현대 도시	09
사계절을 위한 옷장	10

제3장

직장 생활을 위한 성공적인 옷차림

일할 때 불편한 옷	11
코프코어(Corpcore)의 등장	11
새로운 파워 슈트	12
새로운 파워 슈트의 5가지 주요 요소	13

결론	14
----	----

개요

예측할 수 없는 환경

도시는 오랫동안 스타일리스트와 패션 디자이너에게 창의적 영감이 되었지만, 지구 생태계가 변하면서 기후가 새로운 차원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시 지역은 농촌 지역보다 29% 더 빠르게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대도시는 그 정도가 훨씬 심합니다. 이러한 예측 불가능성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우리의 일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에서 살아가고 일하는 사람들의 신체 및 정신적 웰빙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업무 생산성부터 친구들과 어울리는 방식까지 모든 부분에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유니클로는 런던과 파리, 뉴욕, 도쿄, 상하이, 방콕, 서울 등 대표 도시에 거주하는 7,000명 이상의 도시인을 대상으로 기후 변화의 실질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유니클로 에어리즘' 설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무려 86%의 응답자가 날씨의 예측 불가능성을 느끼고 있었고 약 3분의 2(65%)는 하루 종일 불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25세에서 44세 사이의 응답자 중 약 4분의 3(72%)은 옷에 남는 땀자국을 걱정하고 있으며, 불편한 옷차림 때문에 계획을 취소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도 56%에 달했습니다.



도시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할 수 없는 날씨

86% 의 응답자가 도시의 날씨를 예측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32% 의 응답자가 예측할 수 없는 날씨가 도시 생활에 스트레스를 더한다고 말합니다

23% 의 응답자가 예측할 수 없는 날씨로 인하여 도심 속 사회활동이 더 어렵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변화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시인들은 무엇을 입고 어떻게 쇼핑할지에 대해 더욱 사려 깊은 선택을 하며,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에어리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절을 넘나들며 활용할 수 있는 캡슐 옷장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예측할 수 없는 날씨에 대처할 수 있는 기능적이고 편안한 제품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날씨에 대한 염려는 특히 젊은 세대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날씨의 불확실성은 단순히 환경에 대한 걱정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옷차림을 결정하는 데도 어려움을 줍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수단으로 패션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옷차림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생활의 일부로, 많은 것이 불확실하게 느껴지는 시기에 작지만 의미 있는 위안을 줄 수 있습니다.”

- 디온 테렐롱(Dion Terrelonge) 박사, 심리학자

도시의 스트레스

더위로 인한 불편함은
젊은 세대가 더 크게 느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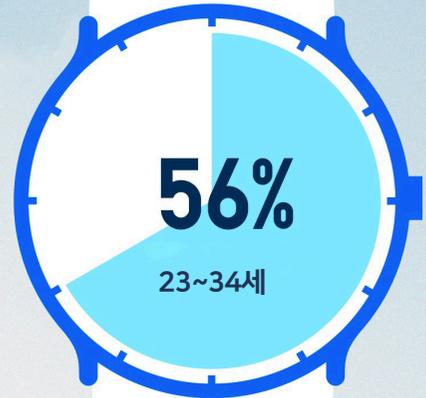
도시의 기온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끈적거림과 불쾌감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덥고 습한 아시아 지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1991년 이후 지구 평균의 두 배 속도로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는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기상기구 및 코페르니쿠스). 미국 역시 예외는 아니며, 뉴욕과 같은 대도시들은 기온과 습도의 동시 상승으로 위험할 정도의 열기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땀을 흘리기 시작하면 스타일은 무너지기 쉽습니다. 불쾌한 냄새, 원단의 변색, 피부에 달라붙는 착용감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며, 많은 소비자들이 이에 대한 염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59%가 체취를 주요한 고민으로 꼽았고, 25~34세 응답자에서는 이 비율이 70%까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기온 변화와 습한 날씨가 여름철 웰빙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 거주자의 다수(56%)는 춥고 흐린 계절의 예측 불가능한 날씨 속에서 정신적으로 적응하기가 더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날씨로 인한 불쾌감 때문에
계획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험이 있다



나는 땀이 신경쓰인다





날씨 좋을 때만 친구

예측할 수 없는 날씨가 사회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외로움을 전세계적인 건강 문제로 선언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의 보호와 촉진이 우선순위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특히 젊은 세대는 사회적 활동을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25~34세 다수(56%)는 예상보다 더운 날씨로 옷차림이 불편하다고 느껴서 계획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전체 평균 39%).

이러한 현상은 상하이(65%)와 방콕(57%)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응답자 3분의 2(65%)는 더운 날씨에는 친구들과 어울려도 제대로 즐기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기분 전환 & 상황 통제

웰빙을 위한 옷차림

더운 날씨로 인한 불편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옷은 도시인을 보호하는 기능적 역할을 점점 더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볍고 편안한 소재는 다양한 기후에서 유연성, 편안함, 보호 기능을 제공하며, 소비자는 제2의 피부처럼 느껴지는 **땀 흡수 원단**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땀을 배출하는 소재가 **웰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응답자의 약 3분의 2(64%)가 땀이 덜 나는 소재를 입을 때 걱정이 줄어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도쿄와 서울에서는 **땀을 흡수하는 이너 상의**의 인기가 높았고, 런던에서는 통기성을 가장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도시인은 땀을 배출하는 가능성을 중시합니다

통기성 원단 선호

59%

편안함 우선

55%

경량 원단 선호

48%

옷차림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확실한 방법

옷차림으로 기분과 웰빙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팁

심리학자 디온 테렐롱(Dion Terrelonge) 박사

01

무엇보다 편안하게

옷을 입고 불편함을 느끼면 집중력과 인지 기능 저하될 수 있습니다.

가벼운 레이어링이나 이너웨어는 하루 동안 체온 조절에 도움을 주어 불필요한 걱정을 덜어줍니다.

02

의식적이고 준비성 있는 옷차림

아침에 바쁘게 외출 준비를 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가장 가까운 깨끗한 옷을 무심코 입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몸에 직접 닿는 옷을 무심코 지나치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시간을 조금 들여 하루의 일정을 떠올려보세요. 중요한 회의는 없는지, 퇴근 후 약속은 있는지, 더운 날씨에 복잡한 지하철을 이용해야 하는지 등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03

힘이 나는 옷차림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더라도, 자신에게 기분 좋은 옷을 입으세요.

좋아하는 색상의 아이템도 좋고, 사랑하는 사람이나 응원하는 스포츠 팀을 떠올리게 하는 아이템도 좋습니다.

“일본 시가현(Shiga Prefecture)에 위치한 도레이 세타 공장(Toray Seta Plant)의 첨단섬유개발센터와 협력해 혁신적인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북극과 남극의 온도와 습도뿐만 아니라 폭우 등의 극단적인 환경을 재현할 수 있는 첨단인공기후연구실 ‘테크노라마 GIII(Technorama GIII)’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모리 후미타케(Fumitake Mori), 글로벌 운영부 글로벌 운영 1팀 매니저,
도레이(에어리즘 R&D 협력사)

출퇴근 문제

결코 쉽지 않은 도시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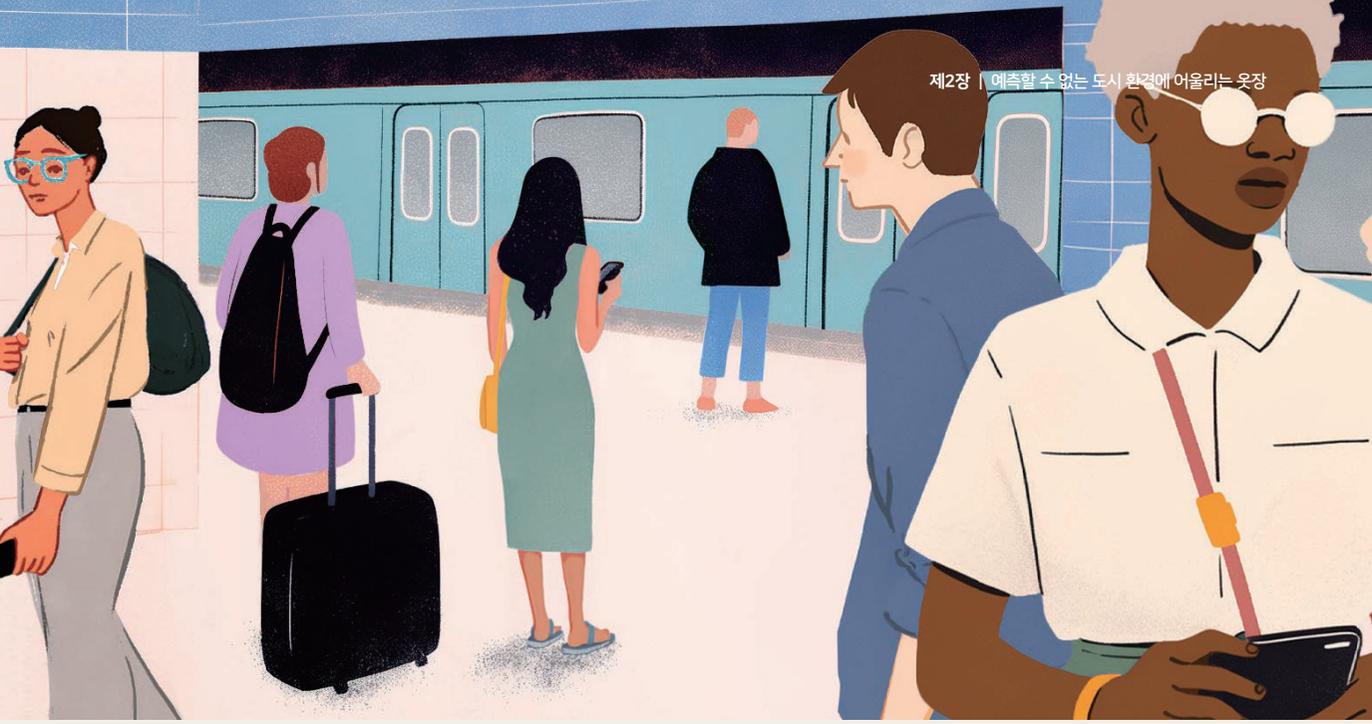
도시에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에어리즘 설문 조사 응답자들은, 집과 사무실을 오갈 때의 온도 변화와 전반적인 불편함이 불안의 원인이라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1명(12%)이 무더위와 땀이 예상되는 날에는 출근을 피한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다수(51%)는 지하철로 출근한다고 답했으며, 이는 모든 교통수단 중에서도 온도차가 가장 극심한 환경으로 꼽힙니다. 미국 지역계획협회(Regional Plan Association, RPA)조사에 따르면, 뉴욕의 특정 지하철역은 외부 기온이 30°C(86°F)일 때 플랫폼 온도가 40°C(104°F)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런던에서는 2023년 지하철 노선의 평균 온도가 28.2°C(82.8°F)에 도달했으며, 이는 단 1년 사이에 4°C(39.2°F) 이상 상승한 수치입니다. 서울 지하철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출퇴근 시간에 모든 에어컨을 가동하여 지하철 내부를 약 24°C(77°F)로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출퇴근하는 응답자 3분의 1(34%)이 이동 시 더위나 끈적임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편안함과 직장인의 단정함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어떤 옷차림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뮤즈로서의 현대 도시

도시인은 패션쇼보다 정거장을 선호합니다

도시와 직장을 실 새 없이 오가는 사람들에게는 **거리 자체가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패션의 인기나 스트리트 스타일 크리에이터들이 패션쇼 앞줄에 앉아 있는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죠.

이처럼 대중교통을 뮤즈로 삼아 협업, 런웨이, 스트리트 스타일 크리에이터와의 파트너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영감을 얻는 것은 더 이상 디자이너만의 일이 아닙니다.

에어리즘 설문조사에 따르면, 상하이와 방콕을 제외하고는 온라인보다는 **실생활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영감을 얻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4분의 1 이상(28%)이 거리에서 스타일링 아이디어를 얻는다고 밝힌 반면, 온라인 크리에이터의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자는 5분의 1 미만(18%)이었습니다. 이는 2023년에서 2024년 사이에 5% 감소한 소셜미디어 사용 감소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출처: Soax).

도시의 거리가 영감의 캔버스가 되면서 바쁜 도시에서 이동할 때 **실용적이고 입기 좋은 스타일**이 점점 각광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응답자 70%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출퇴근할 때 **편안함을 고려하여** 옷을 구매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온라인 보다 현실에서 더 많은 영감을 얻습니다. 이는 친숙하며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 눈으로 보는 것에는 믿음에 따릅니다.”

- 디온 테렐롱(Dion Terrelonge) 박사, 심리학자

어디에서 보는 옷차림에 영향을 받는가



런던, 뉴욕, 도쿄, 상하이, 서울



소비자가 옷이 끼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의식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계절에 입을 수 있는 옷 선택 (레이어드하기 쉬운 옷)



39%

트렌디한 패션보다 타임리스 디자인 선택



35%

내구성이 우수한 리테일러 또는 브랜드에서 구입



30%

사계절 캡슐 옷장 만들기



24%

사계절을 위한 옷장

예측할 수 없는 환경을 위한 유연한 옷

날씨 예측이 점점 더 어려워지며 계절에 구애받지 않는 옷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8~44세 응답자 46%가 시즌별 트렌드에 덜 신경 쓰게 되었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패션위크가 트렌드를 주도했지만, 새로운 세대의 디자이너들은 이를 점점 거부하고 있습니다. 보그 비즈니스(Vogue Business)는 2023년에서 2024년 사이에 프리폴 쇼(Prefall show) 39건이 줄었다고 집계했습니다. 패션 관계자들도 비슷한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퍼스바자(Harper's Bazaar)의 디지털 편집자인 에이미 드 클릭(Amy de Klerk) 역시 “컬렉션이 보다 시즌에 구애받지 않는 접근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캡슐 옷장과 옷 정리 앱의 인기 또한, 일년 내내 다양한 도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옷을 선호하는 사고방식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도시인 70%가 이동 시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옷에 투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설문 조사에 답한 응답자 약 4분의 3(77%)이 이동 중에 실용성과 스타일을 겸비한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기 때문에 스타일을 포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25~44세 응답자의 81%를 차지했습니다. 소비자가 구매에 더욱 신중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응답자의 45%가 원하는 만큼 자주 입지 못했다고 답한 시즌 아이템의 종말을 의미할 수 있으며, 실제로 3분의 1 이상(35%)이 타임리스 디자인에 투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일년 내내 유연하게 입을 수 있는 적응형 원단에 대한 수요뿐만 아니라 쉽게 레이어드릴 수 있는 옷이나 체온 조절이 가능한 기능성 이너웨어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 주기와 예측할 수 없는 날씨로 인하여 소비자는 선제적 결정보다 반응적 결정을 내리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을과 겨울이 항상 춥다고 단정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스스로 생각하고 날씨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한 옷장이 필요해졌습니다.”

- 디온 테렐롱(Dion Terrelonge) 박사, 심리학자

일할 때 불편해요

업무에 도움이 되는 옷차림

문제는 출근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출근 후에도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생산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줄어들고 있는 노동 인구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갤럽 연구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직장인 41%가 '일과 중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남성(35%)보다 여성(41%)이 옷이 불편하면 업무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에어리즘 설문 조사 응답자 3분의 2 이상(69%)이 불편할 정도로 더우면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답했으며, 에어컨을 과하게 작동되면 여름에도 사무실이 지나치게 추워 업무에 방해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여성 5명 중 1명(20%)이었고 남성은 그보다 더 적은 16%였습니다.

이는 다른 연구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 주제이며, 한 연구에 따르면 업무 온도가 낮으면 여성의 생산성 및 인지 능력이 저하하여 궁극적으로 경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성별에 따른 불균형 가능성을 시사하며, 다시 한번 개인이 하나의 도시 환경에서 다른 도시 환경으로 이동할 때 극심한 온도 변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코프코어(CORPCORE)의 등장

직장에서의 자신감 고취

업무 환경이 재택근무와 출퇴근으로 구분되며 점점 더 캐주얼해지고 있는 세상에서 '오피스웨어(office wear)'의 정의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이번 설문 조사에서 재택근무 시 업무복을 입으면 업무 효율과 전략적 사고가 향상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에어리즘 설문 조사는 이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응답자의 약 절반(45%)이 정장 착용 시 생산성이 향상된다고 응답했으며, 44%가 정장을 입으면 어려운 작업을 더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58%가 정장을 입으면 직장에서 자신감이 더 생긴다고 답했습니다.

35세 미만이 정장과 생산성 및 자신감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가장 높았는데, 이를 통해 최신 사무실 사이렌과 코프코어 트렌드를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다시 출퇴근 업무로 전환되며 진지함을 보여주는 새로운 정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거의 절반(49%)이 여전히 직장에서 캐주얼한 옷을 입으며 출퇴근을 위해 통기성과 편안함이 좋은 원단을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장을 선택한 응답자는 15%에 불과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새로운 추세에 따라 워크웨어의 미래가 '컴퓨터코어 실용적인 디자인과 퀄리티 있는 소재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새로운파워 슈트

성공을 위한 옷차림

우리가 입는 옷은 업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파워 슈트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는 누가 산업계의 리더가 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20세기와 21세기에는 양복을 입은 남성이 주로 높은 자리를 차지했고,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높은 지위와 성공이라고 하면 양복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옷차림 인지 현상으로 인하여 특정 가치 및 속성과 관련된 옷을 입을 때 이를 성취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 예로 파워 슈트를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크산업처럼 리더의 스타일이 계속 변화하고 캐주얼해진다면, 미래에는 어떤 옷이 권위를 상징한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 옷이 편안한 옷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 디온 테렐롱(Dion Terrelonge) 박사, 심리학자

에어리즘 설문 조사 결과는 이러한 예측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LS:N 글로벌(LS:N Global)의 예측 애널리스트인 마르타 인데카(Marta Indeka)는 “파워 슈트가 외부의 위협에 대한 추가 보호 기능 등으로 말 그대로 입는 사람에게 힘을 주는 새로운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파워 슈트의 5가지 주요 요소



01 편안한 재단

응답자 63%가 옷이 편안하면 스트레스 상황에 보다 잘 대처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핵심은 낮부터 밤까지, 또는 사무실부터 사고 모임까지 입을 수 있는 활용도 높은 아이템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비결은 핏이 좋고 편안하며 쉽게 바꿔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자신감을 높이는 것입니다.



02 통기성 좋고 편안한 소재

응답자 약 3분의 2(64%)가 땀이 덜 나는 소재를 입으면 걱정이 줄어든다고 답했습니다. 원단에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천연섬유나 에어리즘 등 특수 설계된 기능성 원단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땀을 덜 흘리면 걱정이 줄어듭니다.



03 가벼운 레이어링

응답자의 45%가 최근 몇 년 동안 시즌 아이템을 구입했지만 원하는 만큼 자주 입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쉽게 레이어드하여 필요할 때 따뜻함을 더할 수 있는 아이템을 선택하여 계절에 구애 받지 않는 옷장을 만듭니다.



04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타임리스 스타일

트렌디한 패션보다 타임리스한 디자인 선택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두번째를 차지한 행동(35%)이었으며, 첫번째는 모든 계절에 입을 수 있는 옷(39%)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만의 실루엣과 나에게 잘 어울리는 디자인을 찾아 보세요. 트렌드에 휩쓸리지 않고 빈티지 패션에서 영감을 얻고 다양한 스타일을 시도해보며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05 질감과 컬러의 즐거움

날씨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 약 5명 중 1명(18%)이 옷 선택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더 어렵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뉴트럴 컬러는 어느 시즌이나 잘 어울리는 캡슐 컬렉션의 기본 요소이며, 좋아하는 컬러를 살짝 더하거나 피부에 닿는 느낌이 좋은 질감을 선택하여 기분을 전환하고 나만의 스타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결론

날씨를 예측할 수 없게 되면서 도시인의 생활방식이 연쇄적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땀과 관련된 문제를 걱정하여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불편함이 생산성과 자신감, 기분을 저해하여 경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에어리즘 설문 조사에서 명확하게 확인한 사실은 현대인이 얼마나 많은 옷을 구매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보다 의식하고 있으며 옷이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에서는 스타일만큼이나 기능성과 유연성, 편안함 등이 중요하며 생활의 모든 단계에 맞게 디자인된 신뢰할 수 있는 옷이 필요합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겨울이 따뜻해지고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며 에어리즘 같은 기능성 이너웨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객이 날씨에 상관없이 편안하고 즐거운 일상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라이프웨어 제품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 카츠타 유키히로(Yukihiro Katsuta), 유니클로 R&D 총괄



디온 테렐롱(Dion Terrelonge) 박사 소개

디온 테렐롱 박사는 지속가능성을 옹호하는 패션 심리학자로 소비주의 및 개인과 패션의 관계에 대한 심리학적 통찰을 공유하여, 사람들이 자신의 습관을 이해하고 더 나은 정보에 기반해 사람과 지구에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는 UAL에서 패션 심리학을 강의했으며, 패션 심리학 강연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 출연과 더불어 데이즈드(Dazed)와 스타일리스트(Stylist), 보그(Vogue) 등 미디어 간행물에 기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BBC의 지속가능한 패션쇼에서 전문가로 활약했습니다. 심리학 정보 컨설팅 회사 스타일 앤 웰빙 컨설턴시 (Style and Wellbeing Consultancy)의 설립자이며 기업과 협력하여 옷차림 및 패션 소비와 관련된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thefashionpsychologist_

출처

- <https://www.wsj.com/style/fashion/gen-z-office-wear-corpcore-office-siren-aritzia-j-crew-revolve-23d72f96>
- <https://rpa.org/news/lab/feeling-the-heat-on-nycs-subway-platforms>
- <https://www.bbc.com/news/articles/cy080ez4r5yo>
"지하철에 에어컨이 없는 50개역은 짐통 그 자체였습니다." - 동아일보
- <https://soax.com/research/time-spent-on-social-media>
- <https://www.weforum.org/stories/2022/10/cities-heat-urban-greening/>
- <https://www.businessinsider.com/fashion-advice-christian-siriano-repeating-rewearing-outfits-2024-6>
- <https://www.vogue.co.uk/article/best-street-style-photos-2024-personal-style>
- <https://www.voguebusiness.com/story/fashion/a-lost-season-why-fewer-designers-are-showing-pre-fall-collections>
- <https://app.nextatlas.com/nexttrend/outcome/49c0c693-114f-4815-b54d-e522fdc07499>
- <https://journals.sagepub.com/doi/abs/10.1177/1948550615579462>
- <https://www.wsj.com/articles/the-science-behind-wfh-dressing-for-zoom-11600626704>
- <https://www.highsnobiety.com/p/corpcore-fashion-trend/>
- <https://www.vogue.com/article/office-siren-girlhood-trend-patriarchy>
- <https://www.harpersbazaar.com/uk/fashion/a31255947/end-of-fashion-seasons/>
- <https://www.businessinsider.com/what-rich-people-are-wearing-high-end-stylists-trends-photos-2025-1>
- https://www.instagram.com/liana_ava/
- <https://www.forbes.com/sites/martingutmann/2024/12/04/41-of-global-employees-are-stressed-heres-why/>
- <https://www.lsglobal.com/fashion/article/29238/safety-fit>